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억과 그 인출이 중급 영어학습자의
듣기이해에 미치는 영향

어학교육전공 (영어교육분야)

김 미 경

1991

기억과 그 인출이 중급 영어학습자의 듣기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년 5 월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어학교육전공 (영어교육분야)

김 미 경

김미경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유진형



審査委員 김영걸



최연희



백동진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의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4
A.	영어듣기이해	4
B.	영어 듣기의 과정	10
C.	듣기와 기억	14
D.	기억과 그 인출	23
E.	외국어로서의 영어 듣기	26
III.	연구방법 및 결과	29
A.	실험 대상	29
B.	실험 자료	30
C.	실험 방법 및 결과	32
IV.	결과 해석 및 논의	35
V.	결론 및 제언	43
참고문헌		45
부	록	47
영문초록		56

표 목 차

1. A, B 두 비교집단간의 듣기이해능력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30
2. 단기기억 인출에서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	32
3. 장기기억 인출에서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	33
4. 장기기억 회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34
5. 담화내용 회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34
6. A집단의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35
7. B집단의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36
8. 외국어 표현 능력이 회상에 미치는 영향	40

도 목 차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emory System	15
2. Sachs' Experiment	20
3. A, B 두 집단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	37
4. 외국어의 표현 능력이 회상에 미치는 영향	41

논 문 개 요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듣기이해에 있어서 기억과 그 인출에서의 방법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기억 및 인출에도 적용되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기억으로부터 청취내용이 인출되는 경우, 회상해내거나 재인할 수 있는 수행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검증했다.

첫째,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의 인출에서 재인과 회상의 수행은 중급 영어 학습자의 듣기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외국어의 표현 능력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청취 내용 회상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에서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단기기억으로부터의 인출에서나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인출에서나 재인의 수행율이 회상의 수행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경우에서건 재인과 회상의 차이는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어 표현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들은 내용을 회상하여 영어로 답할 경우에는 실제 이해하고 기억하는 의미정보에 비해 낮은 수행율을 보였다. 이로써 외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언어 표현 능력의 부족은 회상 수행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에 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이 종전의 문자 위주의 읽기와 쓰기 중심에서 보다 적극적인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그 관심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듣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영어 듣기능력평가를 해마다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듣기 이해능력 개발의 중요성 및 듣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영어 듣기능력 신장에 대한 영어교사들의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듣기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듣기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듣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기억의 유형 및 그 인출 방법에 따른 양상을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학생들의 영어 듣기교육에 대한 이해 및 당면한 문제점을 찾아 그들의 영어 듣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듣기지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모국어 뿐만아니라 외국어에 있어서도 언어를 청취 이해하는데 기억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기억의 인출에는 재인과 회상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기억의 두가지 유형인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에 따라재인 및 회상의 수행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수행결과가 얼마나 영어학습자의 듣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청취내용을 영어로 회상하느냐와 한글로 회상하느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가 연구의 관심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이론적 배경으로, 영어 듣기 이해능력의 세가지 요소인 소리의 식별, 청각 인상의 기억, 내용의 이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중 청각 인상의 기억을 중심으로, 중급 영어 학습자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한 실험대상으로 서울시내 인문계 K 고등학교 2학년 두 반 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기억 및 그 인출에서의 방법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청취기억 및 그 인출에도 적용되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 검증을 위해서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에서 청취내용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영어를 청취하는 경우, 기억의 유형에 따라 재인 및 회상의 수행과, 청취 내용을 영어로 회상하느냐와 한글로 회상하느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험에 있어서 실험대상자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으므로, 실험 결과로부터 의미있는 유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외국어로서의 영어 듣기이해는 기억과 그 인출이 재인 및 회상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를 야기시키는 구체적인 원인들에 대한 독립적인 실험들은 시행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A. 영어듣기이해

과거 10년간의 심리언어학 연구를 보면, 주로 언어수용과 언어저장 문제를 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감지, 언어이해 및 기억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데, 언어수용과 저장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청자를 주로 실험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청자의 경우 자극을 조정, 지배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

(일반적으로 영어듣기 능력이란 전달되는 말의 구성요소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듣기는 심리언어학 내지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언어기능으로, 발화속도, 억양, 발음의 명확성, 주저함, 구절끊기와 같은 수행요소와 함께 음운적, 어구적, 문법적, 개념적인 복잡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

듣기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H.G. Widdowson은 구두로 말하여진 언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hearing과 listening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¹ 박 경자(1984), 「심리언어학」(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p.79.

Hearing...is the activity of recognizing that signals conveyed through the aural medium constitute sentences which have a certain signification. Listening is the activity of recognizing what function sentences have in an interaction, what communicative value they take on as instances of use.²

Hearing은 듣는 이가 귀로 들은 것의 음운론적이고 문법적인 체계와 문장의 구성을 인지하고, 그 문장의 문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로, 언어적 요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관심이 된다. 반면에 listening은 듣는 이가 들은 문장들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인지하고, 그 이전에 말하여진 문장과 어떻게 상호관련해서 사용되는가를 인지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듣기는 hearing 보다는 listening을 의미한다.

언어학자인 K. Chastain은 듣기 이해능력 개발의 단계 및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를 소리의 식별(sound discrimination), 청각 인상의 기억(auditory memory) 및 내용의 이해(comprehension)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³⁾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소리의 식별이란, 우리 말에 없는 영어음과, 우리말과 비슷한 영어음을 듣고 구별할 줄 알며, 또 영

²H.G. Widdowson(1979),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60.

³M. Celec-Murica & Louis McIntosh(1979),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p.68.

어 자체의 음소와 초분절음적 요소들을 듣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모국어에는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조음점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기 어렵고, 발음하기 어려운 음들의 식별과, 그 음들로 구성된 문장이 가지는 억양, 어순, 단어들간의 상호관계성 등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소리의 식별은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청각 인상의 기억이란, 귀를 통해서 방금 들은 것을 머리속에, 일정 시간동안 저장(기억)해 두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이란 수분 혹은 수초동안 지속되는 메아리로 남아있는 기억이며, 장기 기억은 들은 말의 의미를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물들은, 듣는 이가 들은 말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자신이 들은 말 하나 하나의 내재적인 의미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그 말하는 이가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듣는 이가 자기 나름대로, 들은 말의 의미를 해석해서 파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듣는 이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들은 것들 중에서 사소한 세부사항은 생략된 것으로 듣는 이 나름의 해석이 덧붙여진 그 말의 요지인 것이다.

듣기에 큰 작용을 하는 기억력에는 여러가지 원리가 작용한다고 Clark과 Clark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principles behind memorization are mostly obvious.
 Passages will be easier to memorize if they are

meaningful, grammatical, short, in the learner's own language and complete with rhythm and meter to anchor the surface structure.⁴

D.I. Slobin은 또한 다음과 같이 구문적요소와 의미적요소가 기억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 is easier to recall a particular sentence than a randomization of the same string. In addition, anomalous sentences are more difficult to recall and recognize than are normal, meaningful sentences. Syntactic structure and meaning thus play important roles in memory for speech.⁵

R.M. Valette도 역시 파지(retention)에 대해서, 뜻을 붙여서 외우는 것이 뜻없이 외우는 것보다 외우기도 쉽고, 이해도도 높아지며, 언어에 일단 익숙해지면 기억률도 자연히 높아져서 긴 문장도 무난히 암기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periments evaluating student ability to remember lists of nonsense words or syllables have shown that

⁴H. H. Clark & E. V.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141.

⁵D. I. Slobin(1971), *Psycholinguistics*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p.26.

those students who impose a certain pattern on the words or syllables increase their retention span.⁶

청각 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를 듣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청각 인상의 기억이 가능해야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실상황 하에서 하는 대부분의 구두 활동, 즉 반복이나 질문, 대답의 연습은 청각 인상의 기억 훈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들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 인상의 기억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는 모든 종류의 듣기가 도움이 되며, 듣기 훈련은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식별할 수 있고, 청각 인상을 잘 기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들은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된 의미의 듣기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듣기이해란, 소리의 식별과 청취한 것의 기억, 그리고 들은 말의 내용의 이해, 이 세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음 연속 전체에서의 정보를 보전하고, 청각 인상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고, 그 소리의 연속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 능력은 문법지식, 문장이 사용되어지는 문맥과 상황들의 여

⁶Rebecca M. Valette(1977), *Modern Language Testing*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74.

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종합 청취 이해력 (overall aural comprehension)은 단어의 이해, 문법구조와 의미구조와의 관련을 이해하는 능력, 종합적인 추리력이 포함되는 의미론적 지식과 통사론적 지식이 다 작용하게 된다.

듣기이해의 측면은 R. Vanderplank에 따르면 추적력(following)과 이해력(understanding)으로 나뉘어진다. 추적력은 보다 입력 자료에 의존적인 것으로 전달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해력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선수경험과 지식, 논리 추적력, 문맥 파악력 등을 활용하여 입력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는 원어민과 비원어민간에 청취유형을, 원어민에게는 추적력이 이해력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같은 경우라는 세가지 유형이 있지만, 비원어민에게는 추적력이 이해력보다 높은 경우와 같은 경우만 있고, 이해력보다 낮은 경우는 없다고 했다. 즉, 원어민은 화자의 실수, 중단, 잡음 등을 쉽게 간파하여 의도된 내용에서 제거할 수 있지만, 비원어민에게는 그 구별이 어려워 청취내용을 추적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⁷

결국 듣기이해란, 단순히 귀에 와 닿는 소리를 인식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기능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언어적 정

⁷R. Vanderplank(1988), "Implications of Differences i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Approaches to Listening," *The British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Vol.26, No.1., p.37.

보와 동시에, 비언어적인 정보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능동적인 기능인 것이다. 또한 이해면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듣기이해란 듣는 이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익숙한 소리의 조합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거나, 해석을 하고, 지식을 얻는 도구이며, 의사를 소통하는 기능이다. 또, 훈련과 연습 혹은 특별한 지도에 의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며, 듣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B. 영어 듣기의 과정

듣기란 상대방의 발성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상대방의 의도 및 의미를 자신의 청각 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여 이해하는 과정이다.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협의적으로 볼 때 청자가 말의 음성적 흐름으로부터 의미의 해석을 얻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적으로는 의미의 해석 뿐 아니라 화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을 사용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흔히 말하기에 부수되는, 수동적인 과정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 이유는 듣기의 과정에 관한 지식 부족에 주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전에는 듣기를 발음이나 문법 혹은 교과서 등의 학습에서 독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0년대부터는 많은 학자들이 듣기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Wilga M. Rivers는 듣기는 창조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듣기

를 크게 인지 수준과 선택 수준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⁸ 단어와 어구를 확인하고, 구문의 상호관계들, 논리적이고, 수식적인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인지 수준이다. 인지 수준에서는 청자는 듣는 것을 기억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면, 담화기능과 관련된 화자와 언어의 여러가지 특징들을 선택하고, 기억하며,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택수준은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화자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듣기의 과정은 문맥에서 들은 표현을 연상하여 내용을 상기하는 것인데, 올바르게 들으려면 적절한 기억범위를 갖고 있어야하며,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한다.

또한, Rivers는 청취이해의 과정을 판별, 기억을 하지 않는 판별과 선택, 짧은 기억으로 되는 판별과 선택, 그리고 긴 기억으로 되는 판별과 선택 등으로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취이해를 위한 모든 문장들은 최초의 진도 때부터 정상 속도로 들려 주어야 하며, 각 breath group에 나타나는 분절의 길이와 분절 사이의 휴지의 길이는 청각 기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⁹

Lado에 의하면 외국어 자료에 대한 청각 기억폭은 모국어 자료에 대한 기억폭보다도 상당히 작으며, 그 비율은 9개 낱말 대 15개 낱말의 비율이

⁸Wilga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60-161.

⁹앞 글, pp.135-155.

된다고 한다.¹⁰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그 말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까지에는 몇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외국어의 발화를 처음 대하면, 구별없이 뒤섞인 소음처럼 들리게 된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면, 그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들 속에서 어떤 일정한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즉, 목소리의 높낮이나, 호흡단위 등에 있어서의 규칙성 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계속되면 소리의 유형과 문장구조의 유형 등을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고, 둘째,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봄으로써 자주 나오는 말들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 말들의 상호관련성은 파악하지 못한다. 세째는 마침내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말의 의미내용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는 들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단어들의 나열로 이루어진 표면구조를 가지고 먼저 작업하게되며, 표면구조는 몇개의 구성소들로 나누어지는데, 청자가 문장에서 구성소를 확인하면 해당 구성소의 기저에 있는 명제를 추려낼 수 있게 되고, 구성소들은 명제가 추출될 때까지 기억 속에 음성적 형식으로 보존하게 된다.

Clark과 Clark은 음성적 자질이 보유된 언어형식으로부터 의미가 구축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대략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¹⁰R. Lado(1965), "Memory Span as a Factor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3, p.127.

- 1) They take in the raw speech and retain a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it in "working memory."
- 2) They immediately attempt to organize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into constituents, identifying their content and function.
- 3) As they identify each constituent, they use it to construct underlying propositions, building continually onto a hierarchical representation of propositions.
- 4) Once they have identified the propositions for a constituent, they retain them in working memory and at some point purge memory of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In doing this, they forget the exact wording and retain the meaning.¹¹

먼저 청자는 들리는 말을 받아들여 그 음성 형태를 기억속에 보유한 후, 그 음성 형태를 즉시 구성소로 나누고, 각 구성소들의 내용과 기능을 확인하여 명제를 구성하며, 명제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세워 나간다. 명제들은 기억 속에 보유되고, 음성적 형태에 대한 기억은 시간 경과와 함께 사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원래의 단어의 나열은 잊혀지고 의미만이 남게된다.

이와같은 해석과정에서의 네 단계들이 반드시 하나씩 차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몇 단계 혹은 전 단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명제 구성 및 통합의 과정에서 청자는 한 문장 단위가 지날 때까지 언어 형식을 그대로 기억 속에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장 단위가

¹¹H.H. Clark & E.V.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49.

지난 후에라야 언어의 표면 형식을 탈락시킨다고 하였다. 그 후에는 언어 형식으로부터 추출되어진 해석, 즉 의미만이 지속적으로 장기기억 속에 보유된다는 것이다.

C. 듣기와 기억

기억은 언어를 청취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R. Griffith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eople do not remember what they do not understand” is accepted, there appears to be little advantage in attempting to consider comprehension and memory separately. This opinion conflicts with that of Richards who attempts to divorce memory from comprehension. This, however, cannot be done: the issue under consideration in test prepar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results will revolve around deciding how much memory store is being engaged, not if memory *per se* is employed.¹²

기억이라는 활동적인 정신작용을 통해 정보는 표상화되고, 저장되며, 인출되고, 과거에 저장된 정보의 조직 속에 통합된다. 기억의 일반적인 모형을 가장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¹²R. Griffiths(1990), “Speech Rate and NNS Comprehension: A preliminary Study in Time-Benefit Analysis,” *Language Learning*, 40: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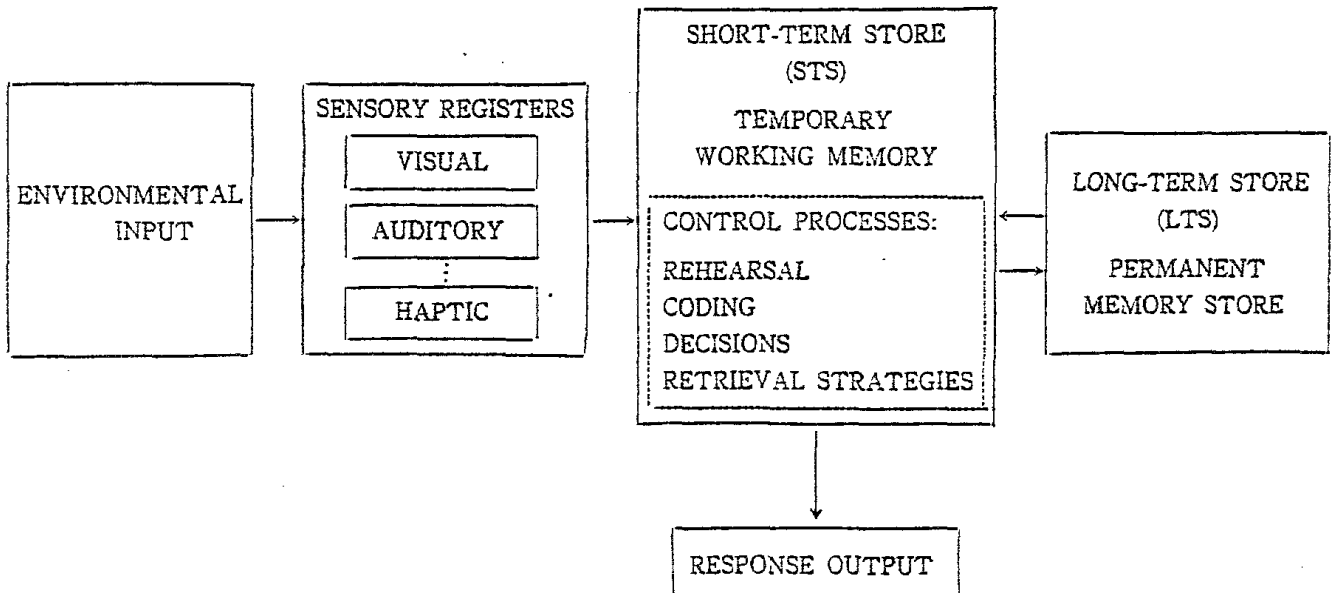


그림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emory System

출 처: J. Anderson(1987).

위의 모형은 정보가 감각적 기억(sensory memory store)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됨을 보여준다. 감각기관에 포착된 모든 정보는 이곳에 수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정보는 순식간에 급격히 소멸되며, 다음 정보처리 장소인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단기 기억은 제한된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가 빨리 소실되어 버린다. 단기기억의 제한용량은 저장용량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용량의 문제이다. 그런데 단기 기억에는 rehearsal buffer(시연 완충장치)가 있어서, 이곳에 있는 정보가 계속 암송된다면 무한정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정보가 반복되지 않거나 다음 처리장소인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으로 넘어가

지 않는다면, 제한적 성격의 단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은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단기 기억과는 다르게 장기 기억은 그 수용능력이 무한하다. 장기 기억 속에는 인간의 외부에 대한 지식, 언어지식, 사건에 대한 기억 등이 모두 보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청취와 관련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언어기억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우선 언어기억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Clark과 Clark은 기억의 단계를 1) 청취내용을 받아들이는 input의 단계, 2) 듣거나 읽은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storage의 단계, 3) 저장된 내용을 상기해내는 output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Input: 청자가 화자의 말을 어떠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가는 후에 청자가 무엇을 기억해내는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을 듣고 문법성을 판단해내도록 하는 경우와 문장을 그대로 재생하여야 할 경우는, 후에 청자가 들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정도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 2) Storage: 들은 내용은 기억 속에 저장되며 이 저장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 단기 기억은 발화된 말의 음성적 정보가 짧은 기간 동안 그대로 지속되는 곳으로서,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은 제한되어 있다. 반면, 장기 기억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까지 남아있는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으로 보다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오면 단기 기억에서 보유했던 많은 형식에 대한 정보가 소실 되고, 그 결과 형식보다는 주로 그 의미만이 남게 된다.

- 3) Output: 기억한 내용을 인출해내는 방법에는 재인과 회상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재인평가에서는 문장이나 글을 제시한 후, 그것을 전에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가를 확인 하도록 한다. 한편, 회상평가에서는 전에 듣거나 읽은 것을 구두로 재생하거나 쓰도록 한다.¹³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기 기억의 수용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감각기 역이 받아들인 방대한 양의 정보는 각 개인의 선택적 주의에 따라 걸러진다. 각 개인은 중요한 정보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며, 이렇게 선택된 정보만이 제한된 수용능력을 가진 단기 기억 속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단기 기억의 정확한 수용력을 측정해내는 것은 물론 어려운 문제이다. 단기 기억의 용량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험자에게 일련의 항목들을 제시하고 회상할 수 있는 항목 수의 최대치를 구하는 것이

¹³H.H. Clark & E.V.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p.134-136.

다. 기억 항목이 숫자이건, 글자이건 기억의 폭은 일관되게 $7(\pm 1-2)$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Miller는 이러한 기억 단위를 기술하기 위해 'chunk'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기억이 자극의 물리적 단위의 수보다는 의미있는 chunk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며, 피험자들은 약 7개의 chunk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그러므로 문장에서와 같이 여러 단어가 합하여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단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 단어의 갯수는 훨씬 증가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억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단순한 단어의 갯수보다는 의미단위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J. Sachs는 의미와 연관성이 없는 어휘는 주로 기억에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을 예견하고, 청자가 어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난 직후 그 문장의 정확한 어휘를 알아보고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행하였다. 문장의 형태구조는 잠시 동안만 기억력에 저장되는데 비하여 의미에 관련된 것이면 표현상의 사소한 변화라도 즉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즉 의미 변화는 아주 강력하게 기억됨을 발견

¹⁴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단기 기억에 관한 실험들에 따르면, 단기 기억은 중간에 다른 방해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20초 정도 지속되며, 서로 관련되지 않은 단어 목록으로는 $7(\pm 1-2)$ 개 정도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국어에 대한 기억실험의 결과이므로, 외국어로서 영어의 경우에도 비슷한 용량을 가졌다고 쉽게 추론할 수는 없다.

¹⁵J.R. 앤더슨(1980), 「인지심리학」, 이 영애(역)(서울: 을유문화사, 1987), pp.162-163.

하였다.¹⁶ 이는 문장을 단기 기억 속에 저장함에 있어 청자가 구성소를 파악하고 그 해석을 이끌어내었다고 전제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모국어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를 들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 전혀 의미를 모르는 언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모르는 언어의 경우라 하더라도 문장은 단기 기억 속에 음성의 나열로서 저장되지만,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는 양과 기간은 모국어의 경우보다 훨씬 줄어든다.

반면에 장기 기억은 첫째, 정보가 비교적 영구적이라는 점과 둘째 정보들이 조직화되어 저장된다는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문장을 들은 직후에는 문장의 형식이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표면적인 형식의 정보는 사라지고 문장의 의미만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된다. Sachs의 실험은 언어의 단기 및 장기 기억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Sachs는 녹음된 담화를 들려주면서 가끔 벨 소리를 울려 멈춘 다음 시험문장을 제시하여 앞서 들은 문장과 동일 여부를 물었다. 시험문장은 원문을 들려준 직후, 40음절 후, 80음절 후에 제시되었다. 이와같은 실험 결과는 문장을 들은 직후에는 모든 시험문장에 정확하게 응답했으나, 40음절이 경과하자 대부분의 언어형식에 관한 정보를 잃어버린 결과, 의미가 같은 문장중에서 원문과 동일한 문장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의미가 다른 문장은 여전히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¹⁶ 박 경자(1984), p.100.

Percentage of correct judgments of "same" or "changed" when the test sentence had the same meaning as the original sentence, and when the test sentence had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original sentence (at three inter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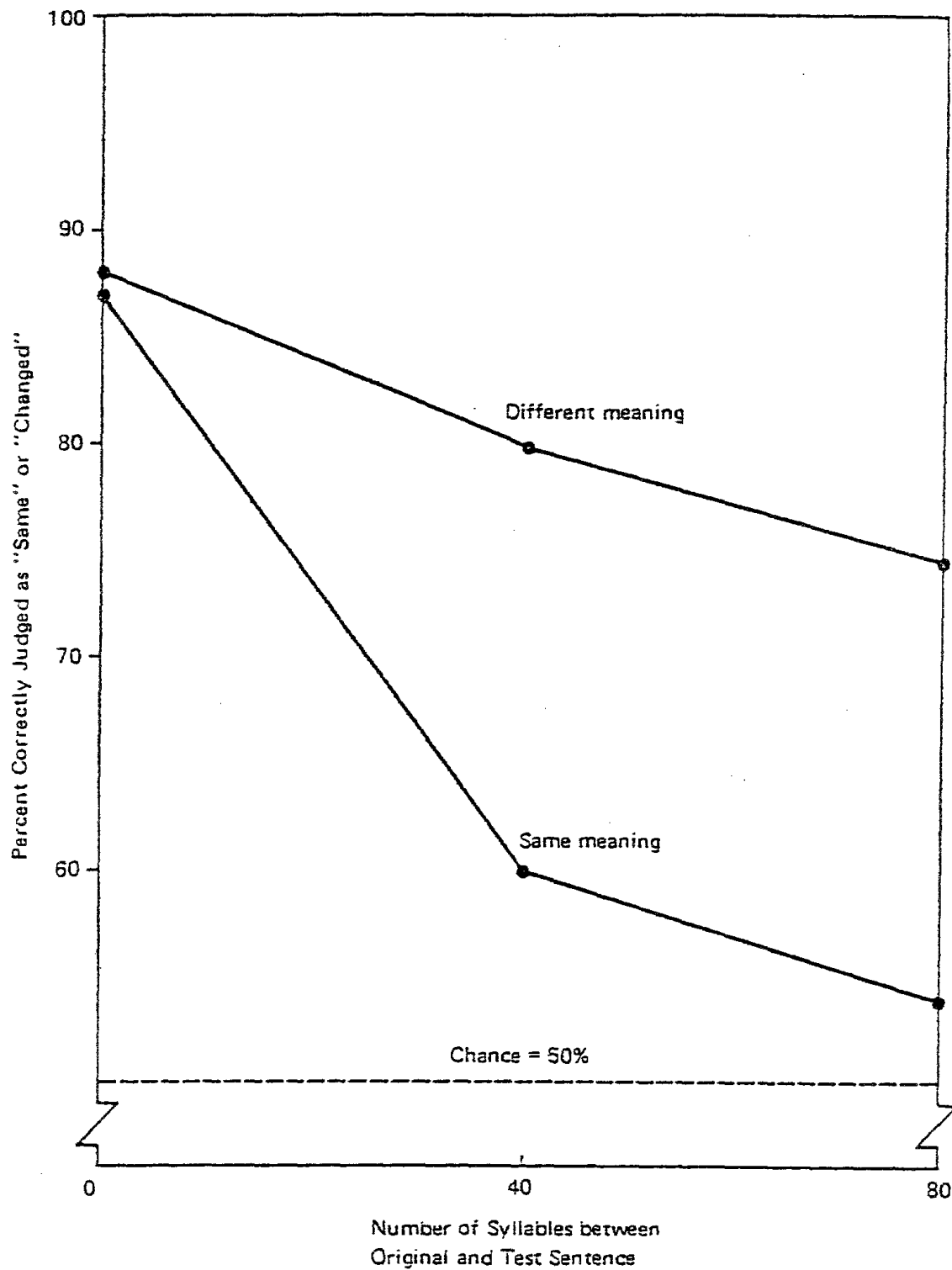


그림 2. Sachs' Experiment
출 처: J.S. Sachs(1967).

Sachs의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같이 40음절이 지난 후에는 의미가 같은 문장과 다른 문장의 정답율이 비슷한 정도로 완만히 감소하는데, 이는 정보가 장기 기억의 단계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들어간 정보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출의 정확성이 줄어든다.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의미적, 정의적으로 더욱 심화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리가 많이 된 정보일수록 오랜 기간 장기 기억 속에 지속된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기억의 정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아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는 활성화의 개념으로도 설명된다. 단기 기억에는 기억 단위들이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되어 있다. Atkinson과 Juola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 정보의 활성화된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기 기억내의 정보는 대체로 비활성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장기 기억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활성화의 과정은 시간을 소요하며, 이미 단기 기억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의 회상은 장기 기억 상태에서 시작하는 정보의 회상보다 빠르다. 장기 기억에서 한 개념이 활성화되면 그 부분으로부터 활성화가 확산되며, 이 확산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억 구조의 인출에 소요된 시간은 그 구조에서 활성화의 확산에 걸린 시간을 반영하게 된다.¹⁷

¹⁷J.R. 앤더슨(1980), 이 영애(역)(1987), pp.165-167.

일련의 단어를 회상함에 있어 처음에 들은 몇 개의 단어는 다른 단어들보다 잘 기억된다. 이는 처음 몇 항목은 주의집중에 의해 청자의 마음 속에서 비교적 철저한 처리과정을 거치는 반면, 그 후의 항목들은 앞선 항목들 때문에 처리에 방해를 받은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더라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처럼 처음 항목이 잘 기억되는 효과를 최초효과(primacy effect)라 한다. 한편, 피험자들에게 단어들을 연속으로 나열하여 들려주고 순서없이 즉시 회상하도록 하면 후에 부른 몇 개의 단어 역시 거의 다 기억되는데, 이는 마지막 몇 개의 단어가 회상 당시까지 단기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의 것이 잘 기억되는 효과를 최신효과(recency effect)라 한다. 서로 관련되지 않은 일련의 항목들을 제시한 후 이를 인출해내도록 하는 경우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최초효과와 최신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중간 부분에 제시된 항목은 앞의 항목의 방해를 받아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장기 기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될만큼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서로 관련되지 않은 일련의 문장들을 인출해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 담화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면 단순히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담화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전개되거나 세부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발전되는 유형, 세부사항을 나열하는 유형, 비교 또는 대조하는 유형 등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 속에서 문장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조가 잘 짜여진 담화에서는 앞 문장의 내용이 뒷 문장들의 내용을 추측하고 예상하도록 도와주는 단서가 되며, 뒷 문장은 앞 문장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¹⁸ 따라서 앞뒤의 문장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 보완해주는 담화구조에서는 앞부분과 뒷부분만이 특별히 잘 기억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담화의 구조가 얼마나 잘 짜여졌는가에 따라서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달라진다. 담화의 구조가 정연하고 긴밀할수록 청자의 이해 및 인출을 돕는다. 청자는 담화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의 지식에 의거하여 담화를 소화한다. 그러나 잘 짜여지지 못한 담화에서는 청자의 이러한 예상이 어긋나게 되어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기억 인출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D. 기억과 그 인출

Clark과 Clark에 의하면 기억의 인출은 재인과 회상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인(recognition)은 현재 지각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친숙한 것으로 느낄 때 일어나는 것으로, 기억 속에는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에

¹⁸김 진완(1988), “담화유형이 회상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p. 43-45.

대한 지속적인 표상이 있어서, 그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을 현재에 경험하면 그과정에서 양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게 되며, 이러한 접근이 재인의 느낌을 유발한다. 재인을 요구하는 질문은 주로 yes/no question, true/false question 및 multiple choice question이다. Yes/no question이나 true/false question은 질문에서 제시하는 문장이 전에 주어졌던 문장, 즉 자극문장과 동일한가 혹은 상이한가를 가리도록 하는 재인의 전형적인 질문유형이다. Multiple choice question의 경우에는 여러 항목에 대해 각각 자극문장과 일치여부를 가리는 활동이 포함되므로, 결국은 하나의 자극문장에 대한 여러 개의 true/false question에 반응하는 셈이며, 근본적으로는 앞의 두 질문유형과 다를 바 없다.

회상(recall)에서는 친숙한 대상이라는 것이 의식적인 사고와 지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상은 표상을 기억 속에서 인출해내어 그것을 의식 속에 제시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즉 재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험이 일어날 때 이미 어떤 단서가 제시되어 있어서 인출 과정을 돕게 되나, 회상의 경우에는 피험자 자신의 힘으로 보다 많은 인출 작업을 해야 하며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의 표상을 의식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회상은 재인보다 더 힘들어지게 된다. 회상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전에 제시된 자극 문장 전체를 인출해내도록 하는 경우와, wh-question 또는 prompt word를 제시하는 질문에서처럼 자극 문장의 일부가 질문 속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Anderson에 의하면 재인의 질문이 회상의 질문보다 더 쉬운 것은 전자가 피험자에게 더 많은 기억 검색의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대로 기억으로부터의 활성화의 차이가 재인과 회상을 차이나게 한다면, 이는 장기 기억의 인출에는 적용되겠으나 단기 기억의 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기 기억의 정보들은 모두 활성화 상태에 있는 활성화 기억이며,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용 기억¹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기억에서는 활성화가 두 인출 양식의 차이를 초래하는 변인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인이 회상보다 쉽다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은 장기 기억 인출에만 해당되는 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재인-회상 간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장기 기억의 정보인출 양상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기억에서의 재인 및 회상 수행에 차이가 난다면,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이에 작용한다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의 재인 및 회상에서는 모국어 기억에서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¹⁹ 대체로 단기 기억과 비슷한 개념으로 종종 구분없이 쓰이는 작용 기억도 단기 기억과 마찬가지로 음성적 내용과 표면적 자질을 보유한다. 작용 기억과 단기 기억의 개념적 차이는 전자가 문장의 해석이 일차적으로 저장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단기 기억의 개념 속에는 이 해석 부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작용 기억은 또한 정보가 심리적 절차를 통해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개념이다.

E. 외국어로서의 영어 듣기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나, 외국어는 습득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듣기에 포함되는 요소를 언어적인 면과 언어외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언어적인 면을 고려해 본다면, 영어 학습자의 굳혀져 있는 모국어의 소리체계가 외국어의 소리체계를 이해하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소리식별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소리식별과 함께,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어의 리듬, 단어 강세와 문장의 강세는 한국어에는 음조나 혹은 강세, 리듬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의미 부여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특히 어렵다.

또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것은 언어 내용을 들을 때, 능동적이고, 의미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구문론적인 것을 더 우선으로 하게된다. 우리 한국학생들은 교실 상황 하에서 문법교육을 주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문법에 맞추어 학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영어를 들을 때에도, 문법요소를 미리 머리 속에 생각하고 듣게 되므로, 듣는 말의 속도가 빠를 때에는 더욱 어렵게 된다. 들은 내용을 머리 속에 잠깐 기억해두는 기억력의 시간도, 모국어보다 외국어인 경우는 더 짧다. Rivers의 글에서도 기억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human organism, he [Broadbent] maintains, has a limited capacity for absorbing information. Since irrelevant items place an extra load on the system, information is at first filtered by perceptual process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which events have in common. This filtered information is then absorbed into the immediate memory, which is a short-term storage mechanism.²⁰

즉,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정보만을 기억하고, 기억시간도 모국어에 비해 외국어의 기억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된 정보를 기억할 때, 즉 문장의 흐름 속에서 의미의 덩어리를 구분할 때에는 일반적인 언어사용능력과 직감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국어 학생에게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영어 듣기이해에서는 영어의 다른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에 비해 말하는 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고 내용을 추측하면서 이해해야 하므로 언어외적 요소의 작용이 크다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어가 제2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이므로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비록 높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교사의 강의 방식이 문법 - 번역식이고, 교재가 다양

²⁰Wilga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57-158.

하지 못하고, 쓰기 중심의 시험때문에 흥미를 곧 잃어버린다. 또, Rivers는 학습 태도에 있어서, 긴장감도 듣기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Ability to distinguish slightly familiar sequences from unfamiliar ones may also be affected by the emotional stress and anxiety which not infrequently accompany aural comprehension experiences in a foreign language. In a face-to-face communication situation, this anxiety is compounded by the fear of being embarrassed or appearing stupid.²¹

또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에게는 잘 깨닫지 못한 주위환경의 언어적, 상황적 맥락 속에서 그 내용의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측력이 부족한데 즉, 들은 내용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반영된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요소에 친숙한 정도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가 결정되고, 말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요점을 파악할 수 있고,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에 대한 추측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²¹ 앞 글, p.156.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기억과 그 인출에서의 방법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기억 및 인출에도 적용되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기억으로부터 청취내용이 인출되는 경우, 회상해내거나 재인할 수 있는 수행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 1)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의 인출에서 재인과 회상의 수행은 중급 영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2) 외국어의 표현 능력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청취 내용 회상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A. 실험 대상

실험의 대상은 서울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두 학급의 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각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무성의한 반응을 하거나 지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응답자는 제외시켰으며, 따라서 편의상 두 집단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각 46명이 실험대상이 되었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작위로 제외시켜 92명만의 반응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집단에게 사전조사과정을 위한 듣기 이해력 테스트를 간단히 실시하였다. 듣기이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과정에서 제시된 문항은 부록 1과 같다. 각 A, B 집단의 50명중 무작위로 25명씩을 선정하여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1. A, B 두 비교집단간의 듣기이해능력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A	25	13.36	3.14	0.98	48	p>.05
B	25	12.52	2.80			

표 1에서와 같이 유의수준 ($p>.05$)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A, B 두 집단은 동질의 집단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실험 자료

Clark과 Clark은 기억의 인출에는 재인과 회상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으며, 재인 평가의 유형에는 true/false question, yes/no question, multiple choice question 등이 있고, 회상 평가 유형에는 wh-question과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회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을 위한 교재로서 미국의 R.G. Breckenridge (1973)의 *Access t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와 1989학년도 고등학교 영어 듣기능력 평가를 기초로 하여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이해력(listening comprehension) 테스트를 발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 및 구조는 중학교 수준에서 이미 익힌 것이며 고등학생들에게 동일 문항을 reading 시키는 경우라면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시된 문장은 비교적 원어인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발음이 정확한 교사가 평상의 속도로 2번씩 읽어주었으며, 각 재인 및 회상 항목에 허용된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다.

실험자료의 채점은 재인평가의 경우에는 한 문항에 2점씩 처리하고, 회상평가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중간의 한두 개 기능어를 잘못 적거나 적지 못한 경우는 회상의 실패로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상의 각 문항은 정답의 경우는 2점, 부분적 정답의 경우는 1점, 오답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담화내용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기억한 내용을 idea unit으로 계산하여 한 idea unit당 1점을 부여하였다.

채점한 결과는 SPSS BATCH SYSTEM²²을 이용한 t-test를 통하여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²²SPSS란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집(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과학의 학문적인 대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인 기법들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조작 설계된 컴퓨터 언어(computer language)를 말한다.

C. 실험 방법 및 결과

1. 실험 1

기억의 유형과 인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 1에서는 실험대상자들에게 단기기억 속의 청취내용을 인출해내도록 하는 항목으로 단기 기억에서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A, B 두집단에게 동일한 실험을 하였다. 7-10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문장을 듣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재인 항목에서는 각 문장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여 multiple choice question의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단기기억에서의 재인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부록 2와 같다. 한편, 6번부터 10번까지의 회상 항목에서는 각 문장을 듣고나서 바로 회상하여 그대로 쓰도록 하였으며, 회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부록 3과 같다. 다음은 두집단의 단기기억에서의 재인 및 회상 수행율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단기기억 인출에서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A집단(재인)	46	6.39	2.11	2.63	90	p<.01
(회상)	46	5.04	2.72			
B집단(재인)	46	6.35	1.92	3.06	90	p<.01
(회상)	46	4.91	2.50			

2. 실험 2

실험 2에서는 장기기억 속의 청취 내용을 인출해내도록 하는 항목으로 재인의 수행과 회상의 수행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들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청취내용은 약 20초가 지나면 단기기억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장기기억으로 넘어간다. 장기기억으로 옮겨진 문장의 인출을 보기 위하여 문장의 청취와 인출간에 20초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시간 차를 형성하기 위해서 긴 내용의 글을 들려주고 재인 평가에서는 들은 내용에 대한 multiple choice question을 제시하였으며 회상 평가에서는 wh-question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취된 글의 앞 내용에서부터 차례로 질문을 함으로써 모든 정보가 장기기억으로부터 인출되도록 배려하였다. 이 때 A집단은 답을 회상하여 영어로 쓰도록 하였으며, B집단은 회상한 답을 한글로 쓰도록 하였다. 장기기억에서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부록 4, 5와 같다.

표 3. 장기기억 인출에서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A집단(재인)	46	7.91	2.17	8.14	90	p<.000
(회상)	46	3.57	2.84			
B집단(재인)	46	7.89	1.94	5.23	90	p<.000
(회상)	46	5.63	2.15			

또한 장기기억의 인출에서 회상한 내용을 영어로 답하느냐와 한글로 답하느냐, 즉 외국어 표현능력이 듣기이해 및 회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험 대상인 A, B 두집단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4. 장기기억 회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A집단(영어)	46	3.57	2.84	3.88	90	p<.000
B집단(한글)	46	5.63	2.15			

3. 실험 3

실험 3에서는 외국어의 표현 능력이 담화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A, B 두집단은 담화를 들려주고 담화내용 전체를 회상해내도록 요구받았으며 A집단은 영어로, B집단은 한글로 답하도록 했으며, 그 내용은 부록 6과 같다. 영어로 들은 내용을 회상한 A집단과 우리말로 회상한 B집단의 수행율은 다음과 같이 비교되었다.

표 5. 담화 내용 회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A집단(영어)	46	3.33	2.47	5.13	90	p<.000
B집단(한글)	46	5.87	2.22			

IV. 결과 해석 및 논의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에서의 재인과 회상의 차이를 각각 t-test로 검증한 후 비교한 결과, 단기기억이나 장기기억의 경우 모두 회상평가의 평균이 재인평가의 평균에 훨씬 못미치며, 또한 재인과 회상이 단기기억으로부터 이루어졌건 장기기억으로부터 이루어졌건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험 대상 A, B 각 집단의 전반적인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A집단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재 인	회 상	
단기 기억	6.39	5.04	t = 2.63 p < .01
장기 기억	7.91	3.57	t = 8.14 p < .000

A, B 두집단 모두 회상보다 재인에서 높은 수행율을 보였으며, 단기기억에서의 재인과 회상은 유의수준 ($p < .01$)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장기기억에서의 재인과 회상은 유의수준 ($p < .000$)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외국어로서 영어 청취내용의 기억과 들은 내용의 인출방법

인 재인과 회상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표 7. B집단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재 인	회 상	
단기 기억	6.35	4.91	t = 3.06 p < .01
장기 기억	7.89	5.63	t = 5.23 p < .000

단기기억에서는 재인과 회상의 수행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영어 모국어 대상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험 1에서 재인과 회상의 수행은 매우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기기억으로부터의 인출이건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인출이건 간에 회상은 재인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모국어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즉 장기기억은 비활성 상태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회상을 재인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만 단기기억은 활성화 상태에 있는 기억이므로 회상이 재인보다 반드시 어려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1의 경우에서처럼 단기기억에서의 재인과 회상의 기억 인출이 장기기억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모국어 기억과 외국어 기억 인출간에 존재하는 어떤 원인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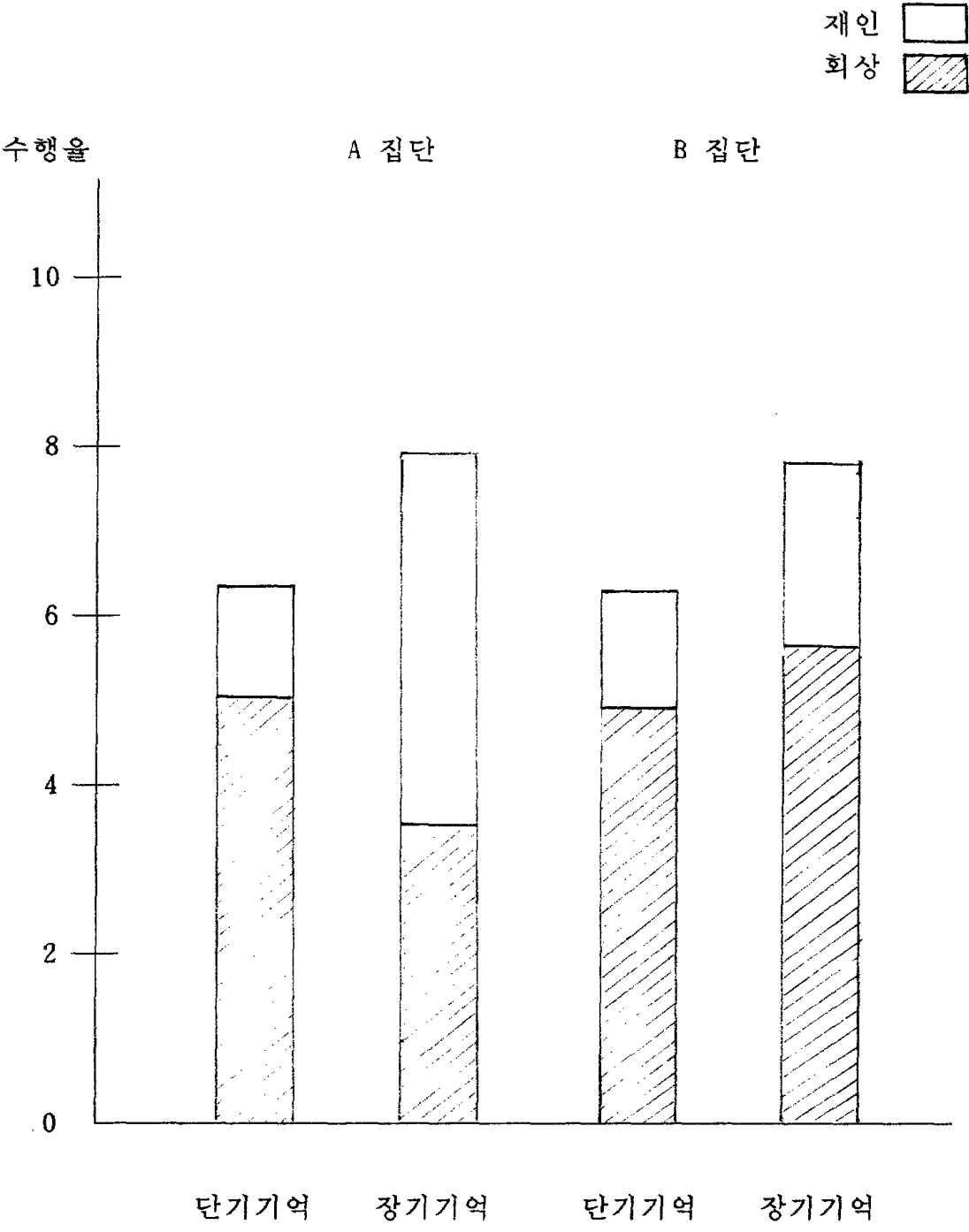


그림 3. A, B 두집단의 재인 및 회상의 수행차이

먼저 자극 입력 당시의 상황이 외국어의 경우는 모국어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그들이 외국어를 청취하고나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이 재인을 할 경우보다 회상을 할 경우에 더욱 심하게 작용하게 되며, 재인의 경우에는 형식은 관계없이 의미만 파악하면 되지만 회상의 경우는 청취 후에 직접 청취 내용을 재생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단기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들의 안정성이 외국어와 모국어의 경우는 서로 다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외국어의 청취는 엄청난 주의 집중을 요하는 것으로 잠시나마 주의 집중을 소홀히하면 감각 기억에 잠시 보유되어 있는 음성정보가 단기기억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음성, 구조 및 의미 분석에 필요한 심도있는 처리과정을 거쳐야만 음성정보가 활성화된 단기기억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음성정보가 단기기억으로 이동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이 의미있는 단어 및 구성소로 전환되고, 이로부터 의미 해석이 도출되어 나오는 데는 상당한 양의 의식적인 정신활동이 요구된다. 뿐만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운지식과 외국어 학습자가 가지는 음운지식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듣는 이는 자신에게 내면화된 음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음성을 해석하는데, 외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 발음 구조에 의하여 왜곡 해석된다면 의미의 파악에도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인 평가의 경우에는 단기기억 속에 존재하는 음성 정보를 재해석하여 올바른 재인에 이를 수는 있으나, 회상 평가

의 경우에는 전혀 단서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수행에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우기 음성을 제대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성소의 단위로 재형성하는 작업이 뒤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명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의식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모국어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처럼 정신활동이 여러방면으로 분산되면 각 방면에 할애되는 처리 과정의 심도가 약화될 것이며 비록 형식에 관한 정보와 의미에 관한 정보가 단기 기억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장을 다시 생성해내기에는 충분할만큼 확실하고 안정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문장의 어휘 및 구조가 익숙한 것이거나, 빈번히 학습된 것이라면, 이러한 문장의 구조적 분석 및 의미 해석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의미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처리도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문장을 재생해내는 능력 자체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단기 기억에서조차 외국어의 언어형식 정보는 불확실하게 저장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언어 형식의 재생을 요구하지 않는 재인에는 의미에의 부담만이 주어진다. 또한 의미조차도 단서 문장이 유발하는 친숙감으로 옳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문장의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더라도 회상에서처럼 이를 자신이 직접 재생해낸다는 것은 모국어와는 달리 힘든 일이 된다. 이러한 설명은 언어 형식의 정보가 사라지고 의미 정보만이 남아 있는 장기 기억의 단계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재인 평가에서와는 달리 회상을 요구하는 문항에서 들은 문장을 구두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일부 피험자들은 쓰는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단기기억 정보가 사라졌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실험 시행상의 결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험 2와 실험 3은 장기기억으로부터의 회상과 담화의 회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 및 한글로 하여 얻은 결과이다.

표 8. 외국어 표현능력이 회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 (A집단)	한글 (B집단)	
장기기억회상	3.57	5.63	t = 3.88 p < .000
담 화 회 상	3.33	5.87	t = 5.13 p < .000

전체적으로 영어로 회상하여 답하는 경우보다 한글로 회상하여 답하는 경우가 더 높은 수행율을 나타냈다. 즉 유의수준 ($p < .000$)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영어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들은 내용을 회상하여 영어로 답할 경우에는 실제 이해하고 기억하는 의미정보에 비해 낮은 수행율을 보이는 것이었다. 담화내용 전체의 내용을 회상하도록 한 실험 3의 경우에도 한글로 회상한 경우는 영어로의 회상보다 높은 수행율을 보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듣기이해는 외국어 표현 능력의 부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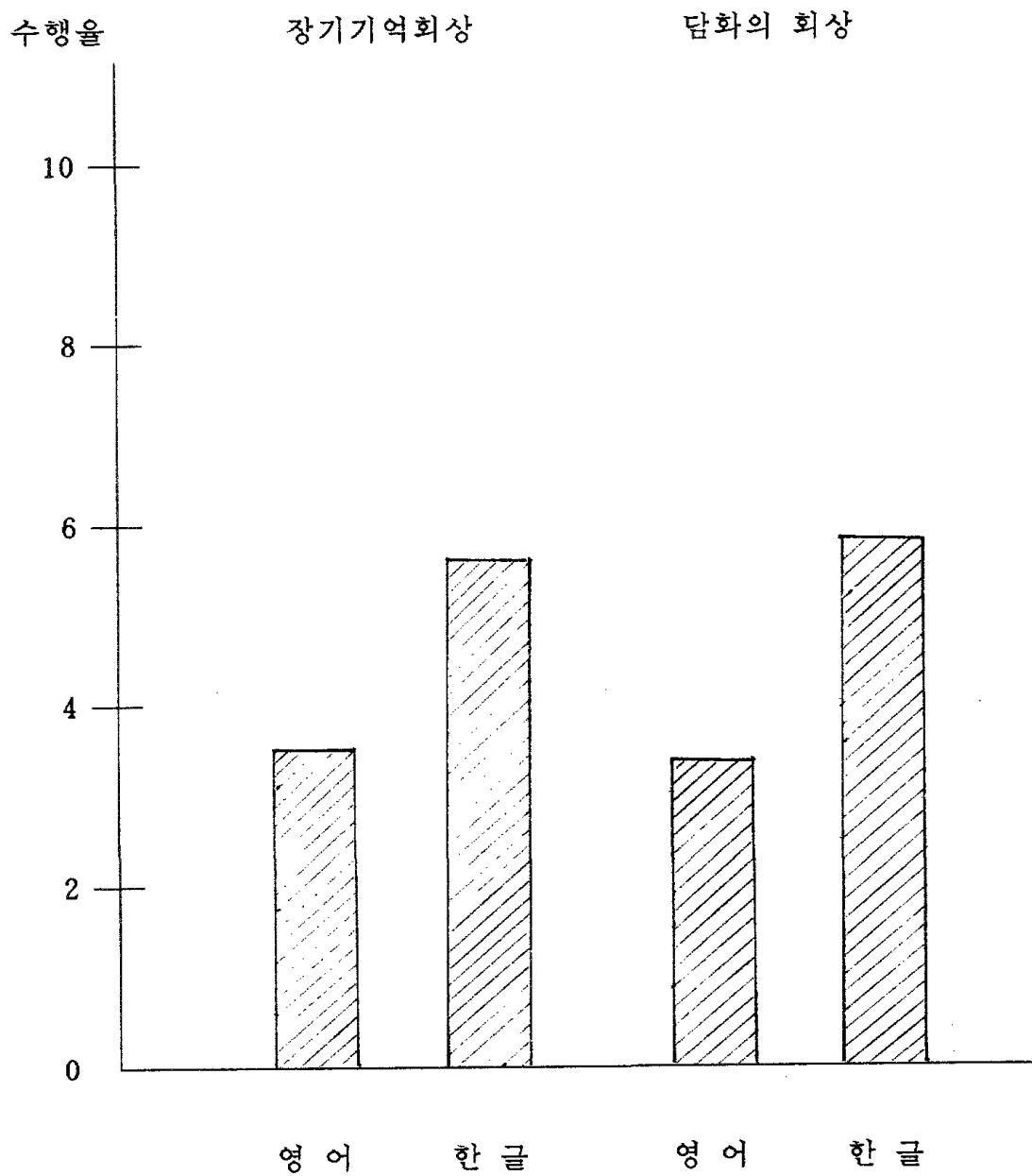


그림 4. 외국어 표현능력이 회상에 미치는 영향

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모국어 사용자의 경우 음성자극이 곧바로 개념과 연결되는 반면,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음성자극을 의미있는 음운으로 파악하고, 일련의 음운을 그 단어가 가리키는 개념과 연결하는데 더 많은 의식적인 처리과정이 요구되며, 외국어로서 청취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해석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외국어로 인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상의 출력단계 (output stage)에서 그 표현능력 즉, 재생의 요소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회상은 청취 내용의 인출과 그 내용의 발화로 이루어진다. 모국어 사용자의 기억에 있어서는 회상과 재인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재생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으나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일단 의미 정보의 인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를 스스로 직접 생성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급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하여 기억의 유형과 그 인출방법, 즉 재인 및 회상의 수행에 따른 듣기 이해능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억과 그 인출에서의 방법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청취 기억 및 그 인출에도 적용되는가를 검증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에서의 재인과 회상의 수행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단기기억으로부터의 인출에서나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인출에서나 재인의 수행율이 회상의 수행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경우에서건 재인과 회상의 차이는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외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언어 표현능력의 부족은 회상수행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의 경우라면 재인과 큰 차이가 없을 단기기억의 회상에서 외국어 학습자가 재인에 훨씬 못 미치는 회상의 수행율을 보인 원인은 청취 자극 입력시(input stage)의 두려움이나 회상정보의 출력시(output stage) 저조한 수행이 모두 재생(reproduction)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듣기능력 개발이 다른 기능 개발의 토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본

다면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능력이 발화능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초기 학습에서부터 청취이해능력 개발에 치중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재인 뿐만 아니라 재생(reproduction)을 요하는 회상의 비중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는 말과 글로 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언어학습을 위해서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모두 그리고 골고루 길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청취능력의 향상은 학생들의 단기 및 장기적 학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로, 들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양은 모국어로 들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양에 훨씬 못 미치며, 이점이 외국어로서 영어의 듣기이해를 교수하고,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한계일 것이다. 언어의 인출에 있어서 재인이 회상보다 용이하다는 것은 이미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제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어 왔으며, 재인과 회상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어를 제 2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학습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까지 그 연구대상을 확대시켜 고찰해 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 진완(1988), “담화유형이 회상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 경자(1984), 「심리언어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 약우(1990), “영어 듣기능력 평가의 문항분석과 듣기지도 방안,”
「영어교육」, 제39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p.29-75.
- 홍 성면(1984), “Listening Skills 와 Bilingual Education,” 「영어교육」,
제27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p.49-90.
- 앤더슨, J.R.(1980), 「인지심리학」, 이 영애(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7
- Boyle, Joseph P.(1984), “Factors Affe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ELT Journal, 38: 34-38.
- Breckenridge, R.(1973), *Access t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Call, M.E.(1985), “Auditory Short-term Memory,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Input Hypothesis,” *TESOL Quarterly*, 19: 765-781.
- Celec-Muria, M., and Louis McIntosh(1979),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 Clark, H.H. & E.V.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Griffiths, Roger(1990), “Speech Rate and NNS Comprehension: A Preliminary Study in Time-Benefit Analysis,” *Language Learning*, 40: 311-336.

- Greenberg, Seth N. & Roscoe Suzanne(1988), "Echoic Memory Interference and Comprehension in a Foreign Language," *Language Learning*, 38: 209-219.
- Krashen, S.D.(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Lado, R.(1965), "Memory Span as a Factor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3: 123-129.
- Rivers, Wilga M.(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obin, D.I.(1971), *Psycholinguistics*,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Stevick, E.W.(1976), *Memory, Meaning and Method: Som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 Valette, Rebecca M.(1979), *Modern Language Testing*,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Vanderplank, R.(1988), "Implications of Differences i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Approaches to Listening," *The British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Vol.26, No.1, pp.29-39.
- Widdowson, H.G.(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듣기능력과 들은 문장에 대한 회상력을 알아 보고자 하는 이 실험은, 그 결과로써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점수를 알아내어 성적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설문지에서 지시하는대로 실험에 임하는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그대로 해주십시오.

1. 주어진 내용은 평상의 속도로 2번씩 들려줍니다.
2. 정신을 집중하여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 페이지를 넘기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앞장이나 다음장을 넘기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4. 지시문을 잘 읽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부 록 1 듣기이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과정

다음에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내용이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표를 하시오.

Centerville is a tow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large town. It has a lot of buildings.
One building is a bank, another is a store.
Another is a supermarket. One large building
is a school. One small building is a house.
It is the Bakers' house.

1. There is no school in Centerville. ()
2. One small building is the Bakers' house. ()

다음 문장을 잘 듣고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3. He goes to school on foot everyday.
 - a. He rides his bike.
 - b. He takes the bus.
 - c. He walks to school.
 - d. He takes a taxi.
4. I think you would better take your umbrella today.
 - a. Your umbrella is better than mine.
 - b. Somebody took your umbrella.
 - c. I think it might rain today.
 - d. Where is your umbrella?

다음 두 문장을 듣고 비교급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을 고르시오.

5. ☐ Mr. Baker's car is two years old.
☐ Mr. Anderson's car is four years old.
 - a. Mr. Anderson's car is newer than Mr. Baker's is.
 - b. Mr. Anderson's car is older than Mr. Baker's is.
 - c. Mr. Anderson's car is younger than Mr. Baker's is.
 - d. Mr. Anderson's car is smaller than Mr. Baker's is.

다음에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영어 문장으로 답하시오.

Peter, Tom and Carol all have plans for the future after they finish high school. Peter is going to study engineering. He is going to be an engineer. Tom likes to play the guitar. He is going to be a musician. Carol likes to paint and draw pictures. She is going to be an artist.

6. What is Peter going to be?
7. What does Carol like to do?

Jerry's father is Mr. Hill. Mr. Hill is a policeman. He works at the police station. Jerry's mother is Mrs. Hill. She is a good wife and a good mother. Jerry has one sister named Linda. She is fourteen years old.

8. How many members are there of Jerry's family?

다음의 대화를 듣고 알맞은 답을 하시오.

[Tomorrow is your birthday, isn't it?
Yes it is. Tomorrow is Thursday.

9. What day is it today?
10. 다음 예문을 듣고 들은대로 쓰시오.

There are twelve months in a year.

부 록 2 단기기억에서의 재인을 알아보기 위한문항

다음에 들려주는 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답지에서 고르시오.

1. This is a place where money is kept and paid out on demand.
- | | |
|-----------------|------------------|
| a. A restaurant | b. A post office |
| c. A bank | d. A museum |

2. A large sandy land where there is very little rain and almost no plants.
- | | |
|--------------|-------------|
| a. A desert | b. A sea |
| c. An island | d. A meadow |

다음에 들려주는 짧은 글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답지에서 고르시오.

3. David went to the store for some apples, but he got pears instead.
- | | |
|-------------------------|------------------------|
| a. David sold apples. | b. David sold pears. |
| c. David bought apples. | d. David bought pears. |

4. John is taller than his elder brother.
- | | |
|---|--|
| a. John is shorter than his elder brother. | b. John is taller than his elder brother. |
| c. John is shorter than his youger brother. | d. John is taller than his youger brother. |

5. Jack left his lunch at home.
- | | |
|--------------------------------------|---------------------------------|
| a. Jack left in the middle of lunch. | b. Jack didn't bring his lunch. |
| c. Jack laughed all the way home. | d. Jack left for his house. |

부 록 3 단기기억에서의 회상을 알아보기 위한문항

다음에 들려주는 짧은 글을 잘 듣고나서 들은대로 쓰시오.

6.

My parents live in a beautiful house.

7.

I got up early today and read the newspaper.

8.

I am glad to hear about your good health.

9.

Mary is shorter than her elder sister.

10.

A school is a place where students learn.



다음에 들려주는 내용은 Mr. Brown의 어떤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 취 내 용)

It is seven thirty in the morning. Mr. Brown gets out of bed. He dries his hands and face on the towel and then brushes his teeth. He puts on his shirt and pants, hat and jacket. Mr. Brown is a mailman and he wears a uniform. Mr. Brown hurries to the bus stop. He runs and tries to catch the bus, but he misses it. He waits for the next bus. He is late for work. Mr. Brown carries the bag on his back. It is very heavy today because there are a lot of mail. At four o'clock he opens the gate of the last house. He is very tired. A dog comes out of the house and chases Mr. Brown. The dog bites a hole in his pants. "Oh," cries Mr. Brown, "What a day!"

부 록 4 장기기억에서의 재인을 알아보기 위한문항

앞에서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해서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1. Mr. Brown is _____, and he wears a uniform.

- | | |
|--------------|----------------|
| a. a student | b. a fisherman |
| c. a mailman | d. a policeman |

12. He dries his _____ and _____ on the towel.

- | | |
|--------------------|--------------------|
| a. shirt and pants | b. hands and face |
| c. shoes and socks | d. hat and jacket. |

13. He runs and _____, but he misses it.

- a. tries to catch the bus
- b. is late for work
- c. carries the bag on his back
- d. opens the gate of the last house

14. His bag is very heavy today because _____.

- | | |
|-------------------------|----------------------------|
| a. there are many books | b. there are a lot of mail |
| c. he is very tired | d. there is a lot of milk |

15. 앞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a. Mr. Brown gets out of bed at seven thirty.
- b. Mr. Brown is late for work this morning.
- c. Mr. Brown hurries to the bus stop.
- d. Mr. Brown is very happy today.

부 록 5 장기기억에서의 회상을 알아보기 위한문항

(A 집단)

앞에서 들은 글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질문에 영어로 답하시오.

16. What does Mr. Brown put on?

17. Why is Mr. Brown late for work?

18. What does Mr. Brown carry on his back?

19. What does Mr. Brown do at four o'clock?

20. What does the dog do?

(B 집단)

앞에서 들은 글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질문에 한글로 답하시오.

16. What does Mr. Brown put on?

17. Why is Mr. Brown late for work?

18. What does Mr. Brown carry on his back?

19. What does Mr. Brown do at four o'clock?

20. What does the dog do?

부 록 6 외국어 표현능력이 담화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청 취 내 용)

Jane and Fred's party is tomorrow night. They are excited, but they have a lot to do. Fred wants to know what they are going to eat and drink. They decide to serve salad, bread and chicken, and for dessert, cake and ice cream. Fred thinks that sounds delicious. Jane will buy and cook the food if Fred cleans the house. They think that sounds fair. They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A 집단)

다음은 Jane과 Fred의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나서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모두 써보십시오. (영어로)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문장의 형태로 쓰십시오.

(B 집단)

다음은 Jane과 Fred의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나서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모두 써보십시오. (한글로)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문장의 형태로 쓰십시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Memory Storage and
Its Output on Listening Comprehension
of Korean EFL Students at the Intermediate Level

KIM Mi-kyung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emory storage and its output on listening comprehension of Korean EFL students at the intermediate level, and to study the gap between recognition and recall of the information in the output from memory storage. For this aim,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students in the second year of a high school, and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testified:

1. In the output stage from short-term memory or long-term memory, the performance of recognition and recall of what they have heard will not influence EFL listening comprehension.

2. The productive skill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will not influence the performance in recall.

Two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cognition has shown a significantly higher performance level than recall regardless of the memory storage typ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intermediate level, which goes against the past psychological experiments on the language memory of native speakers.

Second, such a low performance of recall in English has been attributable to the insufficient productive skill as a foreign language. Accordingly, for EFL listeners, the lack of productive skill in English works as a variable that leads to the lower performance in recall.

In order to improve the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of EFL intermediate students, teachers should give sufficient comprehensible input in the classroom for the students to be able not only to comprehend the utterance but also to reproduce the content in English. They should also make an effort to do studies about the practical teaching method of EFL listening comprehension.